

지면안내

**02**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바톤 이어받아  
보도

**03** 민주화 향한 열망에 주목하는 대학가, 홍콩에 연대하다  
사회

**06~08** 소설 부문 가작 <나의 개츠비> 시 부문 당선작 <은방울 웃음꽃>  
한성문학상

**12** 우리들의 추억, 이젠 사진 속으로  
재개발기획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생자치기구의 총선거가 진행됐다. 선거 결과, 총학생회는 '한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총대 의원회는 '청량' 선본, 학생복지위원회는 '도란' 선본이 당선됐다. 단과대학에서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만이 입후보했으며, '두드림' 선본이 당선됐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2면에 계속

## 맞올린 제10대 총장 선출... 후보지원자 5명 접수

지난 11월 22일, '한성대학교 제10대 총장 초빙' 접수가 마감됐다. 접수된 총장후보지원자는 외부 인사 1명과 내부 인사 4명이며, (접수순으로) ▲정창덕 순호대학교 총장 ▲이창원(사회과학부) 교수 ▲한정수(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세홍(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상원(ICT디자인학부) 교수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1차적으로 예비후보자 3~7인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 교직원 투표를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올린 뒤,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신임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예비후보자에서는 위의 인원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본교의 학교법안인

한성학원은 정관시행세칙 제12조 4항에서 '예비후보자는 총장 후보자 공고 당시 한성대학교에 재직하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의 비율이 어느 한쪽도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 인사의 비율이 4/5인 현재, 임시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불가피한 것이다. 예비후보자는 이달 7일에 3~7인으로 선정될 계획인데, 이는 법안 이사 4명, 내부 교수 3명, 직원 1명, 학생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가 주관한다.

12월 중순에는 교수 3명, 직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교직원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표권은

정관시행세칙 제3장 제13조 3항에 의거해 교수 1인당 1표, 직원 1인당 1/3표가 부여된다. 정순선(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 간사는 "투표권은 학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명시된 전임교원·직원에게 부여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계약직이나 1년 이하인 계약교원과 재단직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27일에는 이사회의 최종후보자 3인 면접과 총장 선임이 이뤄질 계획이며,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총장 선출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창의융합교육원, 2020학년도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추가 개설

창의융합교육원(HS C&C School)이 전공 트랙 제도 바탕의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20학년도 창의 융합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한다. 이에 창의융합 교과목은 20여 개 과목으로 증설하고, 창의융합교육원이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방송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광현 기획처장은 "창의융합능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학생들이 전공지식 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융합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0학년도 창의융합 교과목은 ▲C&C School 산하 VR·AR, AI, 빅데이터, IoT 리빙랩, 스마트팩토리 분야와 융합한 교과목 이외에도 ▲학생 트랙선택 기반 융합 교과목 ▲교수자 자율 공모형 융합교과목

▲학생 주도형 융합교과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학생 트랙선택 기반 융합교과목'은 1트랙과 2트랙의 소속 단과대학이 각각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두 트랙의 융합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며, '교수자 자율 공모형 융합교과목'은 교수가 융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복수의 트랙을 기반으로 한 교과목을 말한다. '학생 주도형 융합교과목'에는 학생들이 직접 신청한 융합형 교과목이 포함된다. 모든 교과목은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평가 수업방식으로, 수강생 모두에게 전공학점이 인정된다.

창의융합교육원의 2020학년도 비교과 프로그램은 ▲분야별 학술 소모임과 프로젝트 ▲3D프린터 및 레이저커팅 워크숍을 비롯한 현장체험 및 특강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추가 개설될 방송 프로그램은 학내 기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때 소모임(10시간 이상 참여하고 20pt 이상의 비교과 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과 프로젝트(30pt 이상의 비교과 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를 이수한 학생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에게 C&C교육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미영(C&C교육지원팀) 팀장은 "C&C교육장학금은 창의융합교육원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비교과 포인트가 학기별 합산 100pt 이상인 학생들의 활동성과 등을 정성평가한 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생들이 확장된 창의융합교육원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맞는 분야를 찾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더욱 풍성해진 제31회 방송제,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11월 26일, 상상관 상상홀에서 '제31회 방송제'가 개최됐다. 방송제는 한성대학교 방송국(이하 HBS)의 국원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CF 등을 상영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연례 행사다. 이번 방송제는 HBS가 단독으로 꾸리던 이전과 달리 영자신문사(HANSUNG TODAY)가 함께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행사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사전행사에는 영자신문사에서 준비한 '생활영어 게임이벤트(이하 게임이벤트)'가 마련됐다. 게임이벤트는 먼저 'OX 문제풀이'에서 가장 우수한 3인을 가려냈다. 이어 특정 알파벳이 들어간 영단어를 화이트보드에 써내는 '워드리뷰'를 통해 이들의 순위를 매겨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게임이벤트에서 1등의 영예를 안은 이재리(ICT 3) 학생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1위까지 할 줄 몰랐다.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 덕분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본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노래방 가요제'와 '축하공연'으로 구성됐다. 노래방 가요제는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면 이를

노래방 기계로 채점해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래방 가요제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지환(전자정보 4) 학생은 "우연히 참가했는데 우승을 하게 돼 얼떨떨하다"며 "좋은 경험이 됐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축하공연에는 '제43회 낙산가요제' 준우승자인 심여송라이터 전시는 씨가 초청돼 무대를 꾸몄다.

2부는 HBS 국원들이 '물건'을 주제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우리가 사는 이유> ▲CF <시그제그> ▲단편영화 <무지개 반사>가 상영됐다. 막간에는 '물건 상식 퀴즈쇼'가 마련되기도 했다. 행사를 총괄한 민경아(인문 2) HBS 실무국장은 "'물건'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물건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다"며 "다들 물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해 관객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학우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좋은 행사를 준비할 테니 HBS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김주원(상상력 1) 최성훈(인문 3)

### 동정란

김효용(ICT디자인학부) 교수 김 교수는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실감콘텐츠 리더스클럽 컨퍼런스'에서 '5G시대 실감콘텐츠 산업 투자현황과 해외진출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참여한다.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바톤 이어받아

##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제35대 총학생회에 당선된 박민수 정총학생회장 후보(좌)와 염승호 부총학생회장 후보(우)

제3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는 재적 인원 6,064명 중 3,355명(55.33%)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박민수(컴공 3) 정총학생회장 후보와 염승호(산공 3)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찬성 2,681표(79.91%), 반대 592표(17.65%)를 득표해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박민수 당선자는 “단선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경선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노력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정기 총학 부스 운영 ▲수강신청 매뉴얼 갱신 ▲이벤트성 축제 다양화 등이다. 박 당선자는 “입기 중 소통 부문에 특별히 집중하려 한다. 정기 간담회를 폐지하지만 정기 총학 부스를 운영해 학우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도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학우들의 수강권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박 당선자는 “수강권 문제는 매 학기 발생하고 있다. 총학이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우들의 수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학우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대동제와 같이

고정적으로 진행해 온 축제뿐만 아니라 이벤트성 축제를 기획해 학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승호 당선자는 “학우들이 총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특히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칭찬과 비판을 부탁한다”며 “학우들의 조언을 토대로 변화하는 총학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 “맑고 맑은 총대의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6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선거에는 대의원 63명 중 59명이 투표에 참여해 38표(64.41%)를 득표한 ‘청량’ 선본의 장예준(사회과학 3) 정의장 후보, 배유림(회화 3) 부의장 후보가 당선됐다. 장예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된다.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주요 공약으로는 ▲대의원 OT 진행 ▲총대 감사의 정당성 문제 해결 ▲온·오프라인 투표 진행 및 투표일 확대 등이 있다. 장 당선자는 “감사는 학우들의 학생회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일반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의원 홍보 OT를 진행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도 OT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유림 당선자는

“일반 학우들은 물론이고, 대의원조차도 ‘대의원’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OT를 진행해 대의원의 개념을 알리는 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의 편의를 충족시킬 방법을 강구 중이다. 대의원들의 많은 의견이 오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학우들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 당선자는 “온·오프라인 투표

진행 및 투표일 확대, 교내 언론기과의 협업 등을 통해 학우들이 선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무겁지 않고 학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선거 참여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배 당선자는 “청량(淸朗)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맑은 총대가 되겠다”고 전했다.



▲제36대 총대의원회에 당선된 장예준 정의장 후보(좌)와 배유림 부의장 후보(우)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 “친근하게 소통하는 학생복지위원회가 되고 싶어요”



▲제37대 학생복지위원회에 당선된 차주은 정위원장 후보(좌)와 정해솔 부위원장 후보(우)

제37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선거에는 재적 인원 6,064명 중 3,346명(55.1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도란’ 선본의 차주은(사회과학 3) 정위원장 후보, 정해솔(스마트 2) 부위원장 후보가 1,749표(52.27%)를 득표해 당선됐다. 차주은 당선자는 “선거 준비과정이 힘들었지만 믿고 뽑아준 학우들 덕분에 기쁘고 감사하다. 가져온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수강신청

모니터링 요원 선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 ▲자판기 종류 교체 및 오류 점검 등이다. 차 당선자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 당일, 상상력인재학부 학우들이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20분간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수강신청 시스템은 매번 바뀌는데 그에 비해 점검은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라며 “적어도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학우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학교 측과 논의해 수강신청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학우들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해솔 당선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은 이전 학복위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공약이다. 이를 활용해 학우들과 소통하고 복지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대 학복위가 이행했던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차 당선자는 “귀항버스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까진 수요가 적은 편이었다. 만약 내년엔 수요자가 많다면 올해와 동일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당선자는 “본인 또한 한 명의 학우로서 학우들에게 친근히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약 역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 학식당 식자재 관리 논란...“시정 조치 취할 것”

지난달 11일, 학내 이명 커뮤니티에는 우리학교 학식당 식자재의 위생을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다. 현재 학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산들푸드 관계자는 “식품보관기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며 잠정 결론을 내리는 한편, “위생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에 의하면, 학식 메뉴 중 ‘유부우동’의 유부가 푸른 색을 띠고 냄새가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태호(산들푸드) 과장은 “자체조리식품보관기준표에 식재료의 제품명과 자체 보관기한 등을 적는 과정에서 매직 펜의

잉크가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즉, 이번 사태가 본질적으로 업체의 위생 관리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알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파악에 힘쓰고 있다”며 “유부납품업체에도 연락을 취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서는 유부를 비롯한 식자재가 납품 당일에 쓰여진 신선한 재료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식자재와 관련해 김혜란(산들푸드) 대리는 “현재 식자재는 ‘쥬에스제이힐세일’로부터 납품받아 당일 입고 및 소진하고 있다”며 “당일날 전처리 할 수 있는 재료는

당일 입고하고 있다. 다만 채소류, 냉동식품은 재료의 특징과 작업능률을 고려해 전날 입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논란이 된 유부는 당일 아침에 입고됐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될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이 과장은 “원인을 마련하고 식품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그는 “학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제13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 개최

지난 11월 21일, 미래관 DLC에서 ‘제13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이하 프레젠테이션 대회)’ 본선이 열렸다.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학생들이 발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논리적 표현 능력 ▲PPT 문서 구성 능력 ▲정중과의 소통 능력 등을 함양시키고자 사고와표현교육과정에서 매년 2학기에 진행되는 대회다. 올해는 ▲동성애 혹은 동성혼 ▲인 가주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등 3가지의 주제로 치러졌다. 이날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6개의 팀이 올랐다. 예선에서는 선착순으로 참가한 35개 팀이 각각

약 7분 동안 발표하고, 이를 강의 전담교수와 학술연구원이 심사하여 본선에 진출할 6팀을 선발했다. 본선은 참가자가 발표를 진행한 뒤 청중 및 심사위원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심사는 단과대학별 교수와 사고와표현교육과정 전임교수가 ▲설득력 ▲창의성 ▲슬라이드 구성 능력 ▲전달 방법 ▲발표 태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을 선발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조’의 박종범(상상력 1) 학생은 “예선과 리허설 때 범했던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행사를 담당한 이상혁(사고와표현교육과정) 주임교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전문적이고 세련된 발표 능력보다는 대학생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열정적 발표 태도, 협업 능력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함양해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융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sea2019@hansung.ac.kr

# 민주화 향한 열망에 주목하는 대학가, 홍콩에 연대하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홍콩 시위'가 격화를 거듭하고 있다. 홍콩 시위는 중국 본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도피한 자를 다시 본토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법(이하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우려해, 거리에 모여 송환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평화 시위였던 이 시위가 지난 7월 21일 위엔룽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백색테러'를 시작으로 경찰의 인권 탄압 현장으로 바뀐 후, 국내 대학가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홍콩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등의 대학에는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레닌(Lennon)벽이 등장했다. 레닌벽은 1980년대 체코의 공산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적어 저항했던 도싹벽이다. 이것이 송환법 반대와 홍콩의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 대학교 벽에 붙이는 식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온라인에는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응원 문구를 담은 '온라인 레닌벽'을 만들었다.

실명된 시위자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한쪽 눈을 가린 사진을 '#eyeforHK'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을 비롯한 16개 한국 대학생 단체 및 청년단체가 시청역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며 중국 당국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인권 탄압 중단 ▲5대 요구(송환법 완전 철회, 시위대 폭도 지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 조건 없는 전면 석방,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및 입법회 보통·평등선거 실시) 수용 ▲타국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약 35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홍콩 시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연대한다는 의미로 검은 옷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해 거리로 나섰다. 홍콩 시위가 진행된 지 5개월에 접어들어, 여전히 국내 대학생들이 홍콩 시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양국의 근현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홍콩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유사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봉연 사회평론가는 "6월 민주 항쟁이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도화선이 된 것처럼, 홍콩 시위도 경찰이 발사한 반백탄에 맞아 실명한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시위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며 "홍콩 시민이 자유를 갈구하는 과정에 한국 대학생들이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게시판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레닌벽이 마련됐다. 홍콩 시위 현장 사진의 아래에는 '홍콩에 자유를'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 23일, 16개 한국 대학생단체 및 청년단체가 시청역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중국대사관에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폭력 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홍콩 연대 시위에 참석한 한수진(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회장은 "홍콩 시위는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세계 보편적 인식인 '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기에 연대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문(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회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전국민의 연대로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홍콩 시위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며 연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임재원(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는 "앞으로라도 한국 학생들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홍콩 시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 세상에 알려진 만큼 양국 학생들이 옳은 민주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평론가는 "집회나 레닌벽 외에도 홍콩 행정장관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시위가 국내 대학가로 확산되자 이를 반대하는 중국 유학생들도 등장했다. 학내에 게재한 대자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레닌벽에 '홍콩 시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도배하는 식이다. 한 회장은 "고려대학교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대자보가 모두 하루 만에 훼손됐다. 이후 대자보를 지키는 과정에서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대자보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목격했고,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조롱섞인 욕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회원은 "양국 학생들이 서로를 혐오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 교수는 "양측 학생들이 국적은 다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배타적인 태도를 떨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시민사회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수민 기자  
sf1228@naver.com

## 뿌리내리지 못한 '고등교육 재정 정책' 돌파구 모색해야

대통령 임기 전반전을 마친 문재인 정부가 둘러싼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그간의 고등교육 정책을 두고 각계각층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교육부에 의하면, 투입된 고등교육 예산은 2010년 7조 5000억 원, 2015년 9조 3000억 원이었으며, 2020년인 내년에는 11조 3000억 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불었다. 박근혜 정부까지 실시되던 ▲ACE+ ▲PRIME ▲CK 등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역량이 과도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재정 지원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재영(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은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했다"면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입학금 폐지 ▲대학혁신 지원 방안 ▲사학 비리 척결 등, 다양한 정책과 지시로 고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현재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날 6일,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는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결의서를 채택해 내년 등록금 인상의 의지를 표출했다.

이러한 "하지만 한 차례의 인하 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큰 걸림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학생, 교수, 직원 등 총 1,7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대학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필요"가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꾸준히 현실화된 입학생 수 감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 등록금 인상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이라며 "기존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내년 고등교육 예산에 약 8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고등교육 예산 증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날 1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문제인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이 발언이 현실화될지 고등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7시간 리고 지금

### 논란의 중심에 선 주 52시간 근무제 무사히 자리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2월, 국회가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최장 2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되,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의 적용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일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과연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지난 7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과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51.7%만이 '근로 단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근무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IT와 제조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실정이다. 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IT업계에서는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한, 이날 박연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은 "업종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이 줄었더라도(프로젝트의) 마감기한이 변함없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단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인가 적용 조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도기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추가될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적용 조건이 '경영상 사유'라는 것에 있다. 계도기간이 길어져 제도 도입이 미뤄질 수 있으며, '경영상 사유'의 기준이 애매해 주 52시간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기업에게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주 52시간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도기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 여기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특별연장근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최장 3개월 동안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영미 기자  
mhbtd0330@naver.com

# 1cm 세상에서 펼쳐지는 예술, 들어나 봤나?

정수민 기자 sf11228@naver.com

바야흐로 손가락이 미(美)의 영역이 된 시대다. '가늘고 옥처럼 아름다운 손'을 의미하는 섬섬옥수(纖纖玉手)처럼, 손은 아름다움의 한 지표로 여겨졌다. 이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쁜 손톱을 위한 관리도 단순히 다듬는 것을 넘어, 그 위에形形色색의 색을 칠하는 수준까지 보다 다채롭고 예술적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약 1cm 남짓한 작은 손톱 위에 갖가지 모양을 구현해낸다. 손톱 위에 펼쳐지는 예술, 바로 '네일아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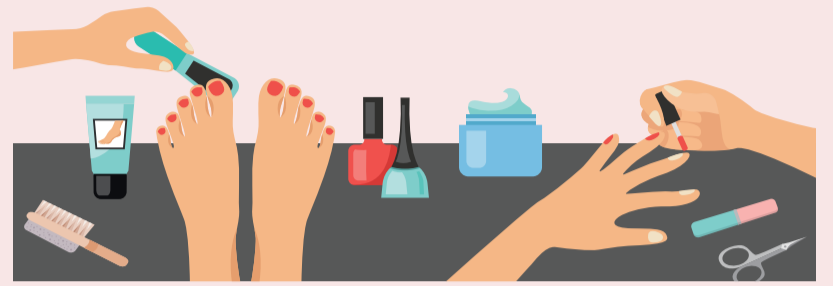
기존 네일아트가 일반 매니큐어를 손톱에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면, 최근의 네일아트는 종류부터 방법까지 가지각색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만의 독특한 네일아트를 더욱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껏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색다른 네일아트에 대해 알아보자.

## 같은 재료, 다른 느낌?

네일아트의 기본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매니큐어다. 평한 원색의 매니큐어

부터 연한 파스텔 톤 매니큐어까지... 다양한 색상을 가진 매니큐어는 손톱 위에 쓱 바르지만 해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 가지 색뿐만 아니라 여러 색을 함께 덧바르면 색상을 조합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매니큐어를 물감으로, 손톱을 도화지로 삼아 작은 붓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내기도 한다. 같은 매니큐어지만 그림만으로도 하나뿐인 네일아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투명한 클리어젤을 굳힌 뒤에 매니큐어를 여러 번 덧바르면 평평한 손톱 위에 입체적인 3D 네일아트도 완성할 수 있다.

평소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 네일아트를 완성한다는 권미정(29) 씨는 "그림으로 그려낸 네일아트는 스톤이나 파츠를 붙인 네일과 비교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두께 때문에 머리카락에 걸리지도 않아 애용하고 있다"며 "미니 마우스와 같은 캐릭터 네일아트도 그림 자체만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 이젠 나도 1인 네일아티스트

앞선 수준급의 그림실력을 요구하는 네일아트에 겁먹어 좌절하긴 이르다. 가벼운 손질 하나로도 네일숍에 다녀온 듯 고급스러운 무늬를 자아내는 네일아트 가 있기 때문이다. '크랙 네일아트'와 '샌드 네일아트', '마그넷 네일아트'가 그것이다. 크랙 네일아트는 미리 발라둔 베이스 위에 크랙 매니큐어를 덧바르면, 크랙 네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저절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네일아트다. 이는 갈래로 어긋나면서 나타나는 크랙 무늬가 베이스의 색과 대비돼 오묘한 느낌을 연출한다. 이에 대해 최예진(네일스토리) 네일

아티스트는 "크랙 네일아트는 베이스로 바른 매니큐어가 약 70% 정도 말랐을 때 위에 덧바라야 가장 뚜렷한 크랙이 생긴다. 또한 어떤 방향으로 바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릴 수 있어 바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샌드 네일아트는 이름 그대로 표면이 모래의 촉감처럼 까끌까끌한 네일을 말한다. 이는 샌드 소재가 빛을 반사하며 은은한 광을 내 우아한 느낌을 준다. 마그넷 네일아트는 매니큐어 속에 자석성분이 함유돼, 자석을 손톱 위에 갖다 대면 네일 속 자성입자가 자기장에 반응해 신기하고 독특한 무늬를 내보인다. 매니큐어가 완전히 굳기 전에 손톱 위에서

자석의 방향을 바꾸면 사진, 평형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눈부신 광택과 선명한 컬러감을 갖고 있어 여러 번 덧바라줄수록 또렷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같이 다채로운 네일아트를 구경하다 보면 저절로 입이 떡 벌어지게 된다. 각자에게 타고난 손의 형태를 바꿀 순 없지만, 네일아트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한다. 성별과 연령에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네일아트의 세계. 그곳을 슬쩍 들여다보면 어느새 네일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완성된 네일아트 살펴보기



1 가수 '첸'의 앨범 표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 권미정 씨의 네일아트다. 밤바다 위 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은 엄지손톱에 섬세함이 돋보인다. 2 봉황색 베이스 매니큐어 위에 크랙 매니큐어를 발라 완성된 크랙 네일아트다. 세세하게 갈라진 선이 마치 잘 구워진 도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3 샌드 매니큐어 위에 반짝반짝한 글리터를 덧바른 샌드 네일아트다. 빛에 비춰보면 은은한 광이 나 매력적이다. 4 자석을 손톱 위에 갖다 대어 연출한 오로라 빛의 마그넷 네일아트다. 위에 금색 매니큐어를 덧바라 포인트를 더했다.

## 바르지 마세요, 이제 붙이세요

바르고, 말리고, 덧바르고 또 다시 말리고... 일반 매니큐어를 활용한 네일아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알록달록한 빛깔을 자랑하지만, 여러 번의 같은 과정을 거듭해야만 완성된다. 게다가 이렇게 공들여 완성한 손톱은 자칫 강하게 움직였다가는 금방 벗겨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매니큐어의 장점은 남겨두면서도, 단점은 한 번에 해결하는 네일아트 도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시금 새롭게 네일아트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네일아트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젤 네일'이다. 젤 네일은 젤 상태의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매니큐어의 일종으로, 일반 매니큐어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지속력을 자랑한다. 이는 매니큐어의 표면이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도자기를 굽듯이 가열하는 큐어링 과정(특수 기계로 UV 경화를 시키거나 응고제를

발라 굳히는 방법)을 거치기 때문이다.

젤 네일을 통해 네일아트에 입문했다는 이도연(25) 씨는 "3주에 한 번씩 젤 네일을 받으러 네일숍에 방문한다"며 "일반 매니큐어보다 가격은 비쌀지라도, 지속력이 길고 직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 즐겨 찾는 편"이라고 답했다.

젤 네일은 유지기간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특수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네일숍을 방문해 네일아트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바르는 형식이 아닌 붙이는 형식의 네일아트가 각광받고 있다. 집에서든 혼자서도 네일아트를 즐길 수 있는 도구인 '네일 팁'이다. 네일 팁은 손톱을 연장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손톱 끝에 붙이는 일명 인조 손톱을 말한다. 사용법도 자신의 손톱 크기에 알맞은 네일 팁을 골라 안쪽의 스티커를 제거한 후, 손톱에 그대로 붙이면

끝이다. 이는 색상부터 스톤까지 디자인이 모두 갖춰져 있어 원하는 팁의 길이만 결정하면 돼 매우 간편하다. 특히 손톱이 짧아 매니큐어를 바르기 어려운 사람들의 애용 아이템이다.

주문제작한 네일 팁을 사용하고 있는 황주희(21) 씨는 "젤 네일은 지우는 과정에서 손톱 표면을 갈아 손톱 표면에 무리를 준다. 그런데 네일 팁은 인조 손톱을 위에 얹는 형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극을 덜 받아 네일 팁을 쓰게 됐다"며 "네일 팁은 손톱 크기에 알맞은 크기를 부착하는 것이 중요인데, 주문제작 네일 팁은 개개인의 손톱 크기에 맞춰 제작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네일 팁과 유사하게 부착하는 형태의 '네일 스티커'도 있다. 이는 얇은 테이프 위에 네일 디자인이 프린트된 것이다. 스티커를 손톱선에 맞춰 붙이고 네일

버퍼로 끝을 갈아 손톱 모양대로 잘라내는 방법인데, 밀착력이 좋아 잘 떨어지지 않고 매니큐어로 그리기 힘든 무늬를 쉽게 붙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이에 대해 박가람(젤도피아) 대표는 "주로 20~30대 여성들이 즐겨 찾고 있다"며 "다른 도구 없이 네일 스티커만 있어도 네일숍 못지않은 네일아트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젤 네일과 네일 팁, 네일 스티커를 결합한 형태의 '세미큐어젤'도 주목받고 있다. 본래 100% 액상인 젤을 일부만 굳혀내 반고체 상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기존 비닐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팁이나 스티커와는 달리, 촉감이 밀랑밀랑하고 유연해 손톱에 맞게 자르기 좋다. 실제로도 액상 젤 네일과 유사한 퀄리티를 보여 지속력과 편리성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사로잡기 위해 네일아트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매력도 놓치지 않고 말이다. 만약 평범한 손가락에 웬지 모를 하전함을 느끼기 있다면, 한 번쯤 당신의 손끝에 자그마한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 네일아트 도구 변천사 알아보기



5 네일아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니큐어. 수십 가지 색상 중 원하는 색을 골라 바르는 재미가 있다. 6 매니큐어보다 지속력이 훨씬 뛰어나고 흡수에 강한 젤 네일이다. 굳히는 과정에서 특수기계는 필수다. 7 원하는 파츠와 색 등을 골라 붙일 수 있는 수제 네일 팁. 손톱 크기별로 맞춰져 있어 그대로 붙이면 돼 편리하다. 8 언뜻 일반 스티커로 착각하게끔 하는 네일 스티커. 손톱 선에 맞게 붙여 잘라내면 혼자서도 네일숍에 다녀온 듯 고퀄리티를 자랑한다.

# 누구에게나 The Koooh의 기질이 있다

〈The Koooh〉 고성배 편집장

소위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을 일컫는 '오타쿠'. 이 단어에서 비롯된 '덕후'는 과거 '집 안에만 틀어박혀 취미 생활을 하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의미가 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덕후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한 인물이 해석처럼 등장했다. 이름부터 낯다운 잡지, 바로 〈The Koooh〉를 출판하는 고성배(35) 편집장이다.

〈The Koooh〉는 '덕후스러운 습성', 즉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는 것을 주제로 하는 독립출판물이다. 고 편집장은 이곳의 1인 독립출판자로서 취재와 글 작성, 촬영 및 디자인 편집 그리고 마케팅까지 혼자서 전담하고 있다. 이런 그가 처음부터 독립출판물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시절, 건축학을 전공해 졸업 이후 건축사무소에 입사한 그는 출판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회사 생활에 지쳤던 그는 '취미 만들기'라는 소소한 일탈을 꾸미게 됐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됐다.

"회사 생활이 고달파 취미 생활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발견한 게 '독립출판'이었어요. 생소하면서도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아 한 기업에서 진행되는 독립

잡지 제작 강의를 수강하게 됐죠"

그는 강의를 수강하며 독립출판에 대한 욕심을 키웠고, 결국 회사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편집자의 길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독립출판물 〈The Koooh〉 1호다.

"〈The Koooh〉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나 덕후'라는 모토로 시작됐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덕후라는 단어를 비웃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 잡지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10권 모으면 너도 (오덕후를 넘어선) 십덕후'가 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죠. 즉, 〈The Koooh〉를 출간하여 덕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덕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덕후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본인의 작업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자신의 흥미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무언가에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 믿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덕후의 기질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숨기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고 편집장의 출간은 〈The Koooh〉에 그치지 않았다. 잡지 외에 다른 성격의 책들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덕후문고』와 『닷텍스트』다. 덕후문고는 잡지 〈The Koooh〉에서 파생돼, 주변 만화를 아카이빙하여 그가 재탄생시킨 서적이다. 또한 닷텍스트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잊을 수 있는 기억을 간직하고자 개개인을 주력으로 하여 만든 이야기 책이다.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픈 마음이 컸던 그였지만, 출간해야 할 범위가 넓어져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출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출판물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어려운 점도 부분 존재했어요. 굳이 한 가지를 꼽자면 제작비 마련이었지만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이거 아니면 뭘로'라는 심정으로 없으면 없는데로 출판을 진행했죠."

여기에서 주변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현재 그는 출판 작업 이외에도 독자와의 꾸준한 소통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예술관 런치박스〉, 인사동 KCDF 갤러리 〈자서전〉, 북서울시립미술관 〈언리미티드 에디션〉 등 다양한 전시회에 자신의 출판물을 출품하는 것이다. 이는 독자와 보다 많이 접촉하는 기회가 됐으며 그의 출판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참여했던 다양한 전시회 중 독립출판물 작가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계속 참여했어요. 그때마다 독자들이 전시회에 직접 방문해 제 책을 읽고, 피드백 해주시고, 좋아해주셨어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많은 자극이 됐죠. 향후 독자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한편, 그는 내년 출판 예정인 『덕후문고』 '게임북'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권 한 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거라'는 목표를 갖고 작업 중이라는 그는, 앞으로 도 이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



▲고성배 편집장의 프로필 사진 (사진 출처: (우)리, 독립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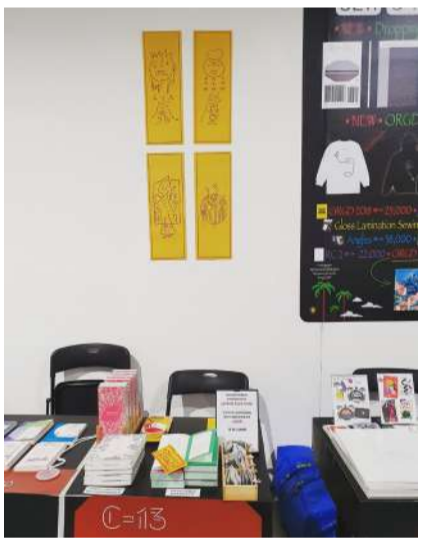
▲『덕후문고』 중 '만화여행책'과 '만화요리책'

"나이가 들어도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책을 만들고 싶어요. 나이가 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진 않더라도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덕후 습성'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어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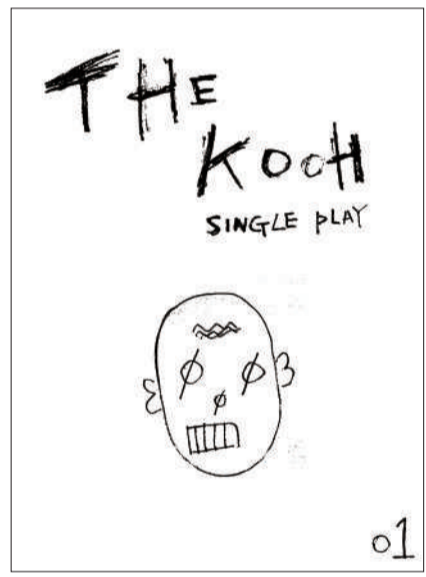
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 보길 바라요."

안현경 기자

dkgusrud24@naver.com



▲'언리미티드 에디션' 전시회에 출품된 고 편집장의 작품들



▲독립출판물 〈The Koooh〉 1호

## 2020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높으면서 넓은.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준비!**

성공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과 가장 가깝습니다. 시대가 인정하는 참된 리더로 나아가길 당신을 위해 한성대학교 대학원이 높으면서 넓은 진리를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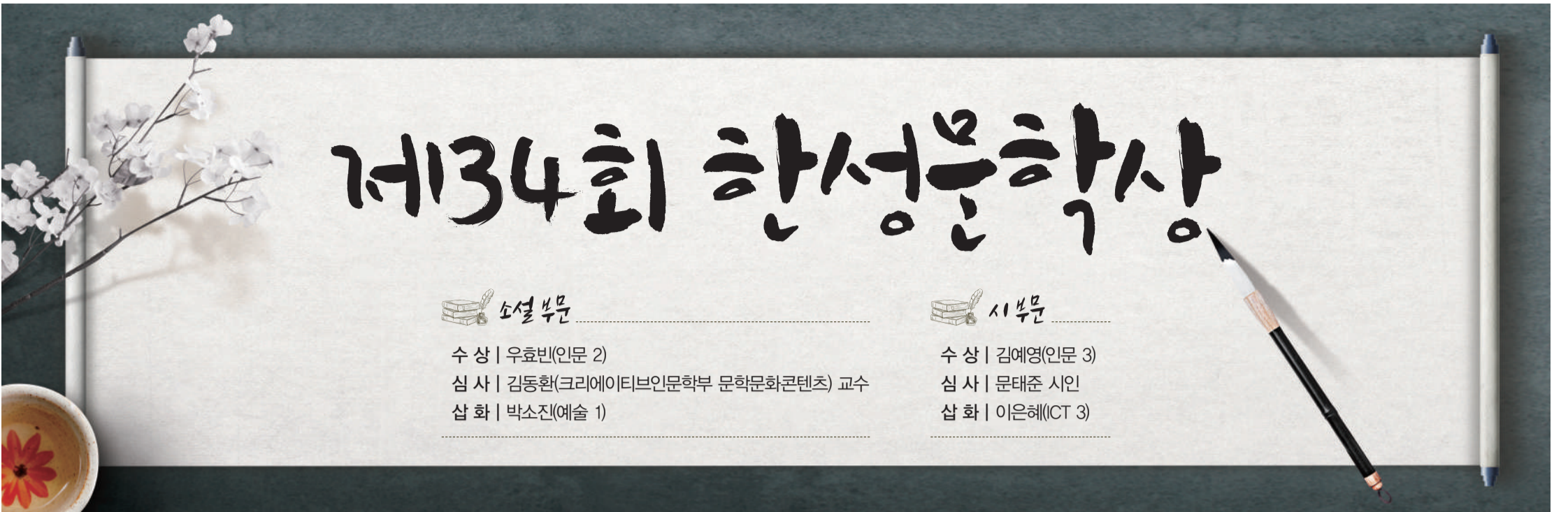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특수대학원(야간)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대학원	학위	계열	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특수대학원	석사	경영계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계			사회계	
		사학과	행정학과			사회계	사회복지학과
		문화정보학과	무역학과			사회계	경찰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부동산학과			사회계	미약알콜학과
	행정학과	신설경영공학과	예·체능계			민원행정컨설팅학과	
	무역학과	정보컴퓨터공학과	예술대학원			부티예술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안보정책학과	
	공학계	미디어디자인학과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예·체능계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사회계	국방시스템학과
학과간협동과정	한국어문학과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사회계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인문계	사학과		사회계	미래융합컨설팅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부동산대학원	사회계	부동산금융·자산관리전공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과		사회계	부동산도시개발·관리전공			
무역학과	무역학과	교육대학원	인문계	교육행정&리더십전공			
경제·부동산학과	경제·부동산학과		인문계	상담심리전공			
사회계	경제학과			유아교육전공			
석사	국제무역경제학과(영어강의)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회화학과						
	의류패션산업학과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2019. 11. 27(수) 10:00 ~ 12. 6(금) 17:00
- 접수 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리케이션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 면접 전형일 2019. 12. 14(토) 10:00 ~ (학과별 변동 가능)
- 합격자 발표 2019. 12. 28(목) 오후 예정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02)760-4271 (일반대학원 교학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8)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선로 16길 116



소설 부문

수 상 | 우효빈(인문 2)  
 심 사 | 김동환(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학문화콘텐츠) 교수  
 삽 화 | 박소진(예술 1)

시 부문

수 상 | 김예영(인문 3)  
 심 사 | 문태준 시인  
 삽 화 | 이은혜(CT 3)

소설 부문 가작

# 나의 개츠비

우효빈

곱게 낡은 종이의 향이 책방을 가득 채운다. 외관은 아주 낡은 동네 책방이지만 개화기 시절에 볼 법한 골동품들로 인테리어 된 책방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풍겼다.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네 책방은 단골이 꽤 많은 편이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보다는 종이나 펜을 들고 끄적거리고 있었고 사색에 잠겨 있곤 했다. 주로 등단하지 못하는 문인들이나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즐겨 찾곤 했다.

소울은 안경을 올려 쓰며 펜을 들고는 그녀 앞으로 온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밀란 쿤데라. 시인은 심장 마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외 다수의 책 집필. 그를 아름답게 편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울은 영상 디자이너였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만 편집해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사후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의 무덤과 함께 빔 프로젝터 형식으로 그 사람의 일생이 담긴 영상이 펼쳐지곤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묘지에 꽃을 놓고 조의를 표하곤 했다. 영상을 아름답게 잘 만드는 소울의 능력이 입소문을 타 소울은 사후 영상 편집 계에서 나름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울은 자신의 앞으로 밀란 쿤데라의 영상 편집 부탁이 올 줄은 전혀 몰랐다. 이거 잘못하다가 나 같은 일개 영상 디자이너가 그분의 마지막을 맡치는 게 아닐까. 소울은 관자놀이를 꼭꼭 누르며 정신을 집중하려 노력했다. 일단 쿤데라의 무의식 속에 잠재한 생각이나 스타일을 알아가기 위해 소울은 그가 생전에 쓴 책이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책방을 뒤져 찾기 시작했다. 쿤데라의 ‘불멸을 꺼내려는 순간 부러질 것 같은 창백한 손이 불쑥 농담을 꺼내 소울에게 건넸다.

“밀란 쿤데라를 편집하다니, 성공했네.”

어느새 소울의 옆에 온 K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보라색 립스틱을 바른 K는 베레모를 쓰고 빼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이 위대한 작가를 감히 편집해도 되나 싶기도 해.”

“말은 그렇게 하고 잘 하잖아.”

이렇게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K는 소울의 옆에 쌓인 쿤데라의 책들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알지, 중얼거리며 소울은 자료조사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K는 책꽂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꺼내 들고 자연스럽게 소울의 옆에 앉아 책을 읽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책방을 조용히 울린다. 소울은 쿤데라의 죽음 영상 디자인 계획을 세우면서 중간 중간 오는 메일을 점검한다.

‘안녕하세요, 소울 씨. 며칠 전 제 남편이 죽었는데 사진과 사연을 보낼 테니 그 영상으로 무덤 위에 영원히 아름답게 제작해 주세요. 사례는 부르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근 7년간 죽음과 관련된 일만 하니, 소울은 예전과 달리 자신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삭막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이런 메일을 받아도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 대신 돈을 얼마 정도 요구할까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영상 편집 계획을 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더욱 그랬다. 밥 먹고 살기 위해 전공을 살려 이 일을 할 때, 소울은 가끔씩 사후 영상 편집 일이 소름 끼치고 우울하다고 느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영상으로 아름답게 살려내는 건 나름 보람이 있으나 문득 영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고인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뒤늦게 자각하곤 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인지, 이제는 제법 이런 일에 익숙해진 그녀였다.

소울은 메일함을 닫고 쿤데라의 영상 편집안의 초안을 짜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며 K는 간간히 콧노래를 불렀다. 아마 개츠비가 나오는 부분을 읽고 있을 것이다. K는 개츠비가 나올 때면 자신만의 리듬 있는 콧노래를 부르곤 했으니까.

“한 열 번쯤 읽은 것 같은데, 안 지겨워?”

소울이 심드렁하게 묻자 K는 고개를 저었다.

“질릴 때쯤 새로운 감흥들이 느껴져서 괜찮아.”

허세로 들릴 법한 말도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K의 표정에 소울은 웃었다. 앵무새와 록 밴드를 좋아하는 K는 등단하지 못하는 작가다. 자신만의 강한 개성이 똑똑 떨어지는 K의 글은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렸다. 내용이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특유의 동화적이고 기묘한 분위기가 좋다고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 K가 등단을 하지 못한 이유도 심사위원들의 감성과 그녀의 글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맞지 않아서 일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문학은 취향의 문제이니 말이다. 열심히 영상 편집 계획을 짜던 소울은 시계를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디 가?”

“상당 담으러.”

소울은 짐을 챙기고는 밖으로 성큼성큼 나갔다. 그런 소울의 뒷모습을 보며 동네 책방 주인은 작게 중얼거리다.

“저 여자 오늘은 혼자 잠깐만 말만 하네. 예전에는 목이 졸린다고 지랄하더니.”

“소울 씨, 어서 오세요.”

상당실 문을 열자 한이수 상담사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한이수는 흉자 티백을 꺼내 머그잔에 우려내 소울에게 갖다 주었다.

“밖에 춥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감기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안부 인사도 걸치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한이수의 말에 소울은 미소를 지으며 머그잔을 만지작거렸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한이수는 소울을 마주 보며 K에 대해 물었다. 소울은 어깨를 가볍게 으쓷었다.

“좀 달랐어요. 악을 쓰고 제 목을 조르거나 저에게 왜 자신을 막지 않았냐며 비난하곤 했는데 오늘은 얍

전히 책만 읽더라고요.”

보라색 립스틱과 베레모는 여전하지만요, 소울의 말에 한이수는 열게 웃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실 때가 온 것 같네요.”

더 이상 상담하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소울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이수의 말에 소울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근 2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환각이 없어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기쁘지는 않았다. 아쉬움과 후련함이 섞인 미묘한 기분이다. 한이수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소울은 밖으로 나갔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년 전, 처음 K를 만난 날에도 온 지상을 삼키려는 기세로 비가 사납게 왔었다.

“다음 달까지 제 영상 좀 만들어 주세요.”

2년 전, 기껏해야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보이는 K라는 여자는 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소울에게 다짜고짜 다가와 부탁을 했다. 돈이 담긴 봉투와 자신이 쓴 글과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사진들을 내놓는 행동에 소울은 K를 올려다보았다. 염색을 많이 해 푸석 푸석해 보이는 금발 머리에 보라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체크 베레모를 쓴 K는 너털너털한 청바지에 록 밴드가 입고 다닐 법한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많아봤자 20대 초반인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사후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아리송한 소울의 표정을 읽은 것인지, K는 담담하게 말했다.

“꼭 잘 만들어 주세요.”

별말 없이 담백하게 말하는 K의 목소리와 표정은 무언가 묘했다. 허세도 아니고, 환멸도 아니고 삶의 모든 애착과 후회를 놓아버린 표정이 이런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K의 얼굴은 초연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자신의 사후 영상을 잘 만들어 달라는 K의 말은 소울의 비약적인 상상력을 증폭시켜 ‘꼭 잘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이 소울의 귀에는 마치 죽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마주할 때 솔직히 소울은 어떻게 할 지를 모르겠다. 자살하지 말라고 한바탕 설교를 하면서 삶에 대한 아름다움과 네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알길래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타인의 일이나 그냥 내버려 두기엔 안 된다. 동정과 연민이 소울의 마음 한쪽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 내가 혼자 너무 갔나. 왜 자살이라고 단정 짓지. 그냥 관상용으로 두려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혼자 머릿속에서 써낸 망상을 지워 나가며 소울은 K를 힐끔 보았다. 사후 영상 편집을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의 사연도 종종 보아왔고,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안됐네 하면서 넘기던 소울이었지만 K는 유난히 눈이 가는 사람이었다.

K는 별말 하지 않고 소울의 근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힐끔 제목을 보니 위대한 개츠비였다. 소울은 K가 준 일기와 사진을 보기 시작했다. 사진은 주로 K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찍힌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외

국으로 보이는 시내 한복판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거나 물담배를 피고 있는 등 감각적으로 찍힌 사진들이 참 예뻐 보였다.

“그건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새 소울의 옆으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K는 건조하게 덧붙였다.

“사진 정말 잘 찍었네요. 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아뇨. 제가 삼각대 설치하고 찍었어요.”

사진 쪽으로 가도 관심을 갖 같은데요, 소울의 말에 K는 킬킬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작가예요.”

뜻밖의 대답에 소울은 K를 보았다. 멋지다는 무언의 감탄이 섞인 소울의 눈빛에 K는 손사래를 쳤다.

“그리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문예지에 소설 투고하면서 푼돈 받는 글쟁이예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 가며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멋지세요.”

소울의 말에 K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다. 직업란에 작가라고 쓰고 백수라고 읽죠. 키클거리며 K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소울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는 K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 K의 뒷모습을 보며 소울은 생각했다. 중2병 같은 감성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소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K는 꽤나 매력적인 사람 같았다.

집으로 온 소울은 K가 준 사진과 글을 죽 훑어보았다. K가 쓴 글들은 대부분 일기나 혼잣말에 가까운 수필이었다.

‘그것을 다시 찾았어요. 무엇이라고 물었나요. 영원이요. 그건 태양과 함께 가버린 바다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영혼. 내가 노래했던 사람들의 영혼. 나를 불태워 주길.’

‘눈이 많은 해의 무거운 눈송이들 아래, 활기 없는 무관심에서 생겨난 권태가 불멸의 차원을 떠곤 하지.’

천천히 곱씹어 읽어 보면 오글거림이 담겨있지만, 이 문장들을 처음 읽었을 때 소울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얼핏 봐도 K는 말을 부릴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왜 등단을 못 할까.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은데. 소울은 K의 다른 글들을 모조리 읽기 시작했다. 편지도 있었는데, 발신인은 없고, 그저 혼자 끄적거린 것 같았다.

‘여긴 피렌체야. 오후에 비가 올 테니까 나갈 때 우산 챙기고…….’

‘오늘은 베르사유에 다녀왔어…….’

‘지금 그리말디스에서 피자 먹는 중이야…….’

K의 글과 사진을 보았을 때, 남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뚜렷한 자의식과 주관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했다. 이 사람에게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에게 대해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소울은 자신의 앞으로 거액의 액수와 함께 온 영상 편집 부탁을 집어치우고 K의 영상 편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 영상 편집은 잘 돼가고 있어요?”

책방에서 K의 영상 편집 초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커다란 앵무새가 그려진 보라색 맨투맨을 입은 K가 옆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럼요”  
소울의 대답에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는 K의 얼굴을 보며 소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글과 사진도 정말 좋은데, 영상을 만드시겠구나, 무슨 일 있으세요?”

소울의 말에 K는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답답하게 말했다.

“언젠간 일어날 일, 조금 빨리 하는 거죠”

영상 잘 만들어 주세요. 적당하게 말을 돌리는 K의 말투에는 더 묻지 말라는 암묵적인 경고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그려진 선을 느끼며 소울은 입을 다물었다.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것이겠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어둠을 애써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소울은 불안했다. 그날 이후로 K와 소울은 동네 책방에서 종종 만났다. 의미 없는 대화들 -영화, 책, 맛집 등등- 을 이어 나가며 그들 나름의 친목을 다져갔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K는 개츠비와 앵무새와 록 밴드를 좋아하는 독특한 아이였다. 외모로 보나, 풍기는 아우라로 보나 K는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고 타인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초판본을 구하는 게 소원이라는 K. 자신이 좋아하는 록 스타의 사진을 보여주고 록 스타들의 재미있는 일화들을 말해주는 K.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K의 눈에는 생기가 넘쳤다. 그런 K를 보며 소울은 K가 죽지 말고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함께 동네 책방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영상이 다 만들어지면 정말 K는 죽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K의 영상이 완성된 날 소울은 영상이 담긴 USB를 K에게 건넸다.

“이 영상이 K씨에게 감상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죽지 말라는 말을 돌려 말하며 소울은 농을 치듯이 말했다. 나름 잘 만들었으니까 감상용으로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거든요. 소울의 말에 K는 웃더니 그러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자신의 영상을 감상용으로 두는 모양인지, 영상을 받은 뒤에도 K는 일주일에 두세 번 동네 책방에 왔다.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울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 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K의 뒷모습을 보면 소울은 안도감이 들었다. 종종 시간이 맞아 K와 함께 책방에서 책을 읽고 인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날 소울은 컷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영상 편집을 하곤 했다.

“3년 전에 한번 자살 시도 했어요.”

갑작스런 K의 말에 소울은 깜짝 놀라 K를 바라보았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라는 식의 말투로 K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수면제를 20알 정도 먹었는데 금방 잠에 들 거라

는 생각과 다르게 멀쩡하더라고요. 정신은 몽롱했지만요.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님께 알려지고, 결국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 했는데 자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위세척이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답답하게 말을 끝맺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K를 보며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소울은 손을 뻗어 K의 손등을 아주 잠깐 짚어주고는 자신의 목의 케이프를 K쪽으로 밀었다. 선볼리 위로의 말을 건네다가 K가 동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소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서툰 위로를 보냈다. K는 그런 소울의 행동에 희미하게 웃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K씨’라는 호칭이 ‘K’로, ‘소울 씨’라는 호칭이 ‘소울 언니’로 변하며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 말을 놓았다. 번호를 교환하고 서로의 지취방에 놀러가서 밥을 해먹거나 각자 작업을 하곤 했고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울메이트가 되었다. 소울은 K가 좋았으나 그녀에게 있어서 딱한 가지 건널 수 없는 게 있었는데 K는 우울증이 심해서 자해를 자주 하곤 했다. 손목, 허벅지 안쪽 등등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흉터가 겹겹이 쌓여갔다. 감정 기복이 심한 날에는 약을 몇십 알씩 먹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날이 잦았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소울의 말에 K는 병원에는 가기 싫다고 딱 잘라 말했다. 권위 의식이 있는 의사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고통을 아는 척하는 게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말이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싶다가도 제발 좀 적당히 하라는 심정이 작게나마 있었다.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들에 취해 있고 그걸 넘어서 즐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했다. K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듯이 행동했지만 소울이 보기엔 K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른인 척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 같았다.

‘소울 언니 미안. 나 응급실이야.’

소울은 욕을 짓기며 K가 찍어준 위치의 응급실로 향했다. 접수처에 K의 이름을 대고 알려준 병실의 호수를 찾아갔다. 창문 옆 침대에 누워있는 K의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잘 꿰뚫다며 괜찮다고, 걱정시켜 미안하다는 K의 말에 소울은 이곳이 6인실 병실인 것도 잊어버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퇴원하면 당장 병원부터 가봐.”

“걱정시켜서 미안해.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안 할게. 하지만 병원은 못 가겠어.”

꼬리를 내리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K의 말에 소울은 기가 찼다.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이제 는 지쳤다. K가 좋지만 그와 별개로 K의 이런 면은 견

딜 수 없이 싫었다. 소울은 K 침대 옆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았다.

“네가 이러는 거 조금 지친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계속 이러는 거, 옆에서 보기엔 힘들어. 말 나온 김에 말 좀 하자면,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이 네 얘기를 많이 해. 너랑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면 약 먹고 자해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고 또 이러는 거, 지긋지긋하고 솔직히 이러는 거 정말 애 같아서 싫어.”

화를 억누르며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격해지는 마음에 소울은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가만히 말을 듣던 K는 소울을 노려보더니 돌아누웠다. 온전히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무언의 몸짓에 소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갔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K를 상대하기도 싫었다.

소울이 K를 만나지 않은지가 한 달 정도 지났다.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도 K에게 그리웠던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쁜 환자를 두고 말을 쏘아붙인 것 같아서 마음에 좋지 않았고 그녀에게 미안했다. K에게 긴 문자를 보내 봤으나 답장이 없었다. 자기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건가 싶다가도 K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자신처럼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 뿐이었고 결국 미우나 고우나 K는 소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소울메이트였다. 다시 만나서 천천히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으나 몇 주째 동네 책방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K 때문에 불안해진 소울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K의 아버지였다. K의 소재를 묻는 소울의 말에 손목을 긋고 자살했다는 K의 소식을 K의 아버지는 힘겹게 전했다. 악문 이 사이로 새어 나오는 K 아버지의 울음이 소울의 고막을 찢어 갈기는 듯했다. 멀쩡히 살아있던 K가 죽었고, 이제 동네 책방에서 함께 책을 읽는 일도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수다 떨 일도 없을 것이다.

사후 영상 편집을 하면서 소울은 자신이 죽음에 대해 많이 무뎠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막상 맞닥뜨리니 그 충격이 감당이 되지 않았고 민겨지지 않았다.

K의 무덤에는 자신이 제작한, 환하게 웃고 있는 K의 영상이 펼쳐져 있었다. 만약에 자신이 그때 병원에서 K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을 가진 K라는 자신의 고정 관념을 버리고 진심으로 K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가가려고 했다면 K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곤 했다. 환각은 그때쯤 보이기 시작했다. K는 소울에게 왜 자신을 막지 않았냐며 악을 쓰곤 했다.

“네가 죽인 거야.”

K의 환각은 그렇게 말하며 소울의 목을 조르곤 했다. 동네 책방에서 혼자 객객거리고 있는 소울을 보며

동네 책방 주인과 단골들은 처음에는 혼비백산하며 그녀를 도우려 달려왔지만 눈치껏, 조금씩 사정을 알게 되며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곤 했다. 미친년이 종종 여기 와서 지랄하니까 손님들이 안 온다고 작게 불평하는 동네 책방 주인은 소울을 정신병자 보듯이 보았고, 오래전부터 이 책방의 단골이었던 사람들은 소울이 그 여자와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짜내고 있다.

네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며 격정을 하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소울은 반강제로 상담을 받았다. 주변의 압박으로 끌려오듯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은 자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로 찾아오는 것보다 치료의 과정이 더 길고 어려운 법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인복은 타고났다는 말을 듣던 게 맞는 모양인지, 그녀의 상담으로 지정된 한이수 상담의는 내담자의 진심을 이끌어내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를 이해하는 척을 하며 권위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이기도는 인간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소울은 예전에 K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겹쳐 보았다.

“무서우면 도망쳐도 돼요. 회피해도 되고요. 하지만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돼요. 그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제가 소울 씨를 도와줄게요.”

환각을 보는 이유가 죄책감이라고 말해주며 한이수 상담의는 그녀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갔다. 약을 먹으면 환각이 보이는 빈도수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K를 볼 때마다 힘든 건 여쩔 수 없었다. 가끔씩 이런 상담도 못 해먹겠고, 환각도 지긋지긋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소울을 잡기보다는 그냥 소울이 마음을 다잡고 되돌아 올 때까지 한이수 상담의는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당연히 치료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걸 연습한 덕분에 어느새 소울도 모르게 치료는 성큼성큼 진행되어져 갔고, 그렇게 K와 작별할 날이 왔다.

소울은 동네 책방으로 향했다. 천천히 눈을 뜨니, 동네 책방 앞에 있는 K가 보였다. 소울은 가방에서 너털너털해진 위대한 개츠비를 K에게 꺼내 주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네.”

K는 위대한 개츠비를 받아 들고는 피식 웃으며 소울에게 말했다.

“언니, 이제 나 보지 마.”

“그래, 잘 가. K.”

K는 2년 전처럼, 소울의 기억 그대로 명랑한 우울함을 내뿜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아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K가 있던 자리에는 위대한 개츠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개츠비처럼, 자신의 초록 불빛을 선명하다가 가버린 K를 잊기도, 잊지 않기도 힘들겠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소울은 개츠비를 물끄러미 내려다 보다가 몸을 돌렸다.

안녕, 나의 개츠비.

## 소설 부문 심사평

열 편의 소설을 여럿의 자리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독자, 비평가, 연구자의 자리를 거쳐 글쓴이의 자리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자리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작품들이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려내고 싶은 세계로 독자들을 이끄는 서사성이 미흡하고 흔히 담긴 문장들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좀 더 건강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눈높이의 조정을 통해 <소녀 365>, <어디에 괴물이 있는가>, <나의 개츠비>를 후보작으로 가려냈습니다.

<소녀 365>는 이야기거리 선택이나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서사적 안목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전의 기법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플롯의 전략이 잘 구현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어디에 괴물이 있는가>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의식을 담은 메시지의 설정과 구현 기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인물의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작품들에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점들은 괴물의 출현 소문과 남편의 실종이라는 사건의 연결고리가 긴밀하지 못하다는 단점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나의 개츠비>는 독자들이 정밀한 독서를 통해 추론해 읽어야

할 요소들까지 고스란히 서술함으로써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모티프의 발굴과 서사적 상황의 설정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갈등 구조를 조직하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사를 전개시키는 문장의 힘을 미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사구조의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K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심도 있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선작을 낼 것인지를 길게 고심한 끝에 <나의 개츠비>를 가작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명령>, <동짓날>, <경곡> 등도 좀 더 치열한 자세로 다듬어 간다면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봄은 하늘로 가네>의 글쓴이는 이 작품을 동화 장르로 전환해서 재창작해 볼 것을 권유해 봅니다.

낙산 기슭에서 소설가의 꿈을 꾸고 있을 응모자 모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 창작의 동기를 밝힌 문장에 시선을 멈추게 만든, <다시 꾸는 돼지꿈>의 글쓴이에게 그 꿈이 실현되기 바란다는 뜻을 특별히 전합니다.

김동환(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학문화콘텐츠) 교수

## 소설 부문 수상소감



우후빈(인문 2)

처음에 가작 당선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고, 믿겨지지 않았으며, 울컥했습니다. 전 제 자신이 글 쓰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상이 저에게는 값집니다. 계속 쓰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식견도 아직 짧고, 나이도 어리고 인격 수양을 더 해야 하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작이니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제 주위에는 유난히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폭이 커서 삶을 살아가는 데 더욱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는 하되, 너무 기대지는 않으며, 각자의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으며 서로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더욱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 당선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며, 저에게 많은 축하와 사랑과 지지와 연대를 준 제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 이무기 부원들, 우리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멋진 사람들이예요. 제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당신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늘 고마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나무 같은 존재인 우리 가족들, 제 당선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시며 여기저기에 자랑하던 언마, 아빠, 제 동생 효정이. 제가 빨리 철들어서 효도할게요. 늘 사랑해요.

사실 지금도 사는 게 많이 힘들고 가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다, 라고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과 같이 계속 써 나가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부문 당선작

# 은방울 웃음꽃

김예영

해동용궁사 돌담길을 걷는데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꽃이 보였다

그 꽃은 한 줄기마다  
갓난쟁이의 통통한 귓볼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막 피어난 은방울꽃은  
귀를 쫓긋쫓긋 세우며  
주변의 소리를 담았다

동자승의 설익은 목탁 소리가 신기한지  
까르르 웃음보가 터지고  
은빛의 귓볼들은 서로에게 닿아서  
목탁처럼 맑은 종소리를 울린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  
고개를 숙여 네게 귀를 맞댄 순간

내 두 귓볼은 툭하고 떨어져  
은방울꽃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너희들과 배시시 웃는다



시부문 심사평

문태준 시인은 199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맨발>, <가재미>,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애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제34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 응모작들을 읽었다. 각각의 작품마다 시 창작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시 창작에 있어서 수준의 낮고 높음이 제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시 창작을 하려는 그 선의의 의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 창작을 통해 대상과 세계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의 심연을 조리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며, 나의 특별한 생각을 문물하게 혹은 날카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 창작을 통한 전언은 때때로 미약하거나 무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방식의 전언보다도 유력한 움직임의 견인할 수 있고 또 내일의 시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대학 내부에 창작의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성문학상이 오랜 전통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을 각별하게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한 작품들은 <교회 침탑>의 4편, <할머니와 나의 노란 고무신>의 4편, <은방울

웃음꽃>의 4편이었다. <교회 침탑>의 4편은 시적 대상들을 바라보되 존재와 존재를 스미고 교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다. 한 사람의 말투를 '근육'의 사용에 빗대거나, 겨울의 시간을 '체온'과 견주어 진술하는 방식도 새로웠다. 이러한 시구들을 더 많이 창안한다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와 나의 노란 고무신>의 4편은 일상을 관찰하는 시선이 정밀했다. 특히 함께 응모한, 고라니의 처지에 화자의 안타까워하는 내면을 겹쳐놓은 시 <고라니>는 마지막까지 당선작과 경합한 작품이었음을 밝혀둔다.

고심 끝에 <은방울 웃음꽃>의 4편을 보내온 학생의 작품들 가운데 <은방울 웃음꽃>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학생의 작품들은 수준이 고르고 안정적이었다. 시적 대상과의 미적인 거리가 잘 확보되어 있었다. 특히 <은방울 웃음꽃>은 뛰어난 수사를 자랑하는 시였다. 은방울꽃의 생김새를 청각기관의 '귓볼'에 비유하고 이어서 그 귓볼로 감각한 내용을 '웃음'과 '종소리'로 변주한 대목은 인상적이었다. 맑은 시심뿐만 아니라 감각을 교차 사용해 표현할 줄 아는 재주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응모한 모든 분들께도 격려를 보낸다.

문태준 시인

시부문 수상소감



김예영(인문 3)

수상의 순간은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를 창작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을 상기시키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서툴렀어도 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백지를 채워나가는 것에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시를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용감함은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하더군요. 이전에 제가 쓴 시들과 비교하면서 그때보다 못 쓴 것 같으면 다시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창작의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했는데,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린 결정은 '잘 쓰는 것보다 일단 쓰기'였습니다. 어설피더라도 계속 글을 써 내려갔던 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일단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나온 시로 문학상을 받으니 고민으로 내린

결정이 괜찮은 것이었음을 확인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해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면 제가 시로 담았던 모든 것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또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경들을 시로 쓸 생각에 설렙니다. 저는 앞으로도 늘 겪고 있어 쉽게 넘어가는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물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대신하는 글을 쓰고 싶네요. 이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다면 제 시를 읽는 분들께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할머니가 암 투병 중이신데 얼른 신문 한 부 들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수상의 기쁨이 할머니와 할머니 간호에 온 힘을 쏟는 가족들에게 닿아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와 나누었던 대화들도 시로 녹여내서 쓰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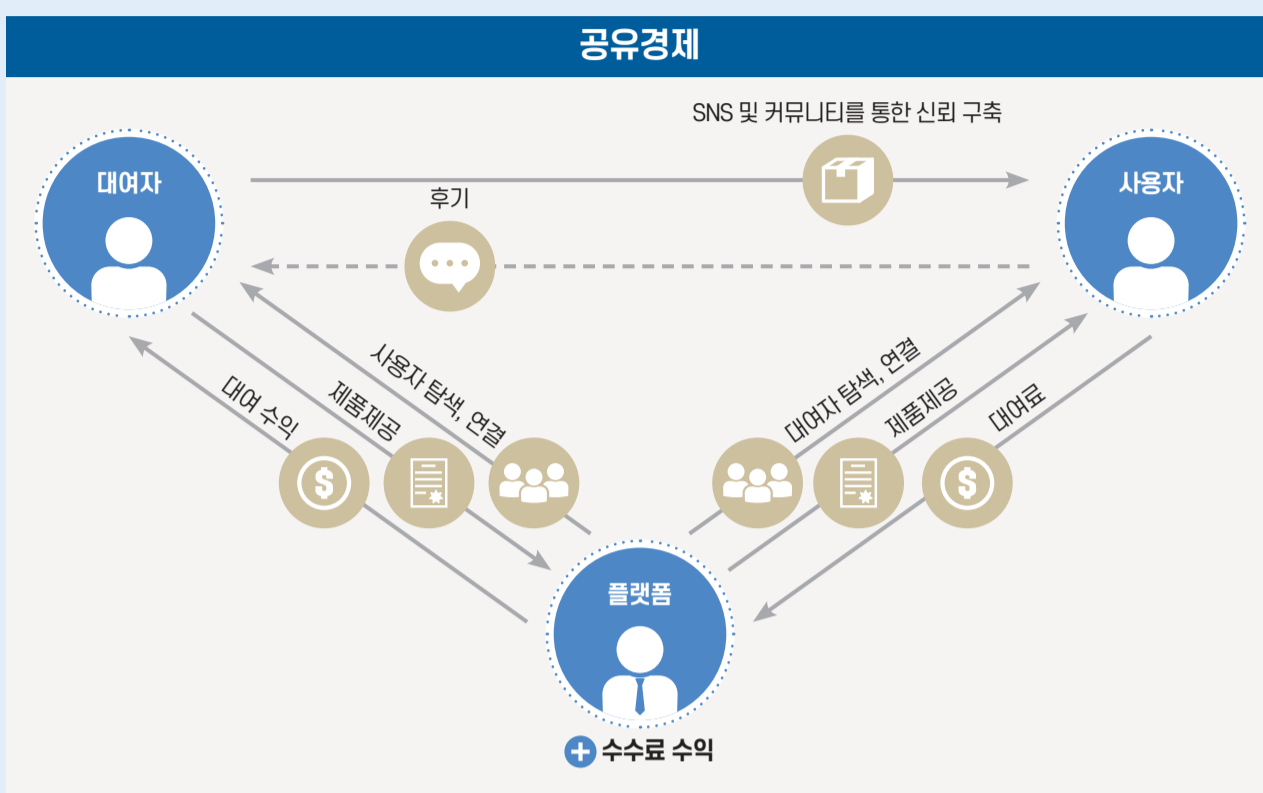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시를 쓰는 데 많은 조언해주신 선생님들과 가족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덕분에 시 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경제,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2000년대 초,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며 "접속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전통경제'가 '네트워크 경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설립된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고,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가치를 공유하다

이같은 공유 서비스는 '공유경제'라는 경제모델로 설명된다. 공유경제란 소비자가 물건, 정보, 공간, 서비스 등의 자원을 다른 주체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방식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84년 마틴 와이츠먼(Martin Weitzman)이 처음 제시했는데, 그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수익 공유 시스템을 제안했다. 당시의 공유경제는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의 급여가 달라지는 탄력적 임금 시스템을 의미했다.



▲플랫폼은 대여자와 사용자를 탐색·연결시키며, 대여자의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자에게 이를 공유한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이 개념이 현대적 의미로 창안됐다. 그는 공유경제가 기존의 전통경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봤다. 전통경제는 생산자의 이윤 창출, 소비자의 재화 소유를 목적으로 했지만, 공유경제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이용 가치'도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사람들의 소유보다는 이용 가치와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은 '제품·서비스의 공유 및 교환 선호형'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이 유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유·무형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타인과 공유하며 자원의 가치에 지속성을 더한다. 제2유형은 '협력적 생활양식 공유 서비스 선호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생활양식이 만들어내는 공유경제 시장이다. 이는 사람 간 관심사, 이슈, 지식 등 무형

제품을 공유하기 위해 유형 제품을 교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지식공유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재분배 공유 서비스 선호형'이다. 이 유형에는 중고시장이나 베품시장이 해당되며, 참여자는 활용가치가 감소하거나 재사용된 제품들을 공유한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공유를 통해 상당량의 쓰레기를 줄이고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자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공유경제의 꽃, 플랫폼

한편, 공유경제에는 대여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가 존재한다. 이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는데,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체 서비스에 끊임없이 투자한다.

이때 네트워크 효과(특정 상품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효과) 중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이 적용된다.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비용은 이에 비례해 늘어나지만, 그것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즉,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도 증가하지만, 가치가 무한히 증가하여 또 다른 사용자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사용자를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이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플랫폼 내 사용자가 1명 증가하면 구축비용은 10이 증가하지만, 그 플랫폼의 가치는 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의 가치 증가는 수익의 증가를 의미하며, 공유경제의 성장은 플랫폼 확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의 확장은 공유경제에 '거품(Bubble)'이 발생할 위험을 야기한다. 공유경제가 실제로 큰 성장이 없어도, 과도한 투자로 인해 마치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거품만 부풀어 오른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유오피스 플랫폼 기업인 '위워크'는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 임대료와 적은 공유 수익으로 적자가 반복되면서 결국 기업 가치가 절반가량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계수(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하면 공유경제의 '고비용·저수익' 현상을 발생시키며, 이는 공유경제 거품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사태에 대해 "기업들은 공유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며 "이를 계기로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 궁금한성(性)

# 잘못된 신념이 불러온 끔찍한 악습, 여성 할례

"나는 음핵을 절단 당했다." 1997년, 소말리아 출생의 모델 와리스 디리가 자신이 5세의 나이에 여성 성기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이로 인해 생리현상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풍습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와리스가 폭로한 이 풍습은 '여성 할례'다.

여성 할례란, 여성의 성기 일부를 절단하는 풍습을 말한다. 이를 경험한 여성들은 통증, 출혈, 용변 장애를 부르는 누공이나 합병증을 겪는 등 평생 동안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와리스의 여성 할례 폭로 이후 전 세계가 아프리카 대륙의 비인도적인 풍습에 공분했지만,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여성 할례가 자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성 할례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한 '가부장적 질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중심주의적 사회 질서가 지배적인 아프리카에서,

여성 할례의 시행은 여성의 신체에 가부장적 질서를 각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할례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남성중심적 질서에 여성을 순응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문화권에서는 여성의 음핵이 남성의 남근과 같은 것이며, 남근의 경쟁자라고 여긴다. 따라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남성의 흔적을 없애고

여성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여성성 부여'는 공동체 안에서 여성에게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할례는 성인식이라는 통과 의례로 이행되는데, 할례를 받은 여성에게는 혼인을 통해 '출산'이라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할례를 거부한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혼인'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즉, 할례를 거처야만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곧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인 것이다.

여성 할례는 '처녀성 확인'을 위해 이행되기도 한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보통 남편에게 귀속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여성이 '온전한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처녀성을 증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할례 의식 중 한 유형인 '파라오식 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은 음핵뿐만 아니라 소음순과 대음순까지 제거하고, 소변과 월경이 나올 수 있는 작은 구멍만 남겨둔 뒤 외음부를 모두 꿰맨다. 꿰매진 외음부는

결론 첫날밤 남편이 풀게 되고, 이로써 여성은 정조를 확인받게 된다.

이외에도 일부다처제가 시행되는 부족들은 여성 할례를 여성의 성욕을 억제함으로써 가부장제에 순응시키는 장치로 이용한다. 음핵을 제거해야 성욕을 없앨 수 있고, 이것이 많은 여성을 만족시켜야 하는 남성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의 성이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도 여성 할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장태상(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교수는 "여성 할례를 이행하는 집단은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 할례가 행해지는 많은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불결한 것으로 인식한다. 말리의 '밤바라족'은 할례를 하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음핵에서 나오는 유독성 액체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이들은 출산할 때 음핵이 아이의 머리에 닿으면 아이가 죽을 수 있다고 여긴다. 이같은 믿음은 밤바라족이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공동체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음핵을 절제당한 여성들은 상처가 덧나 염증이 감염되거나 대소변 조절을 하지 못하는 등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는 매우 비인도적인 의례이자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 교육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삼 학 송 ·

# 누군가의 마지막, 누군가의 시작

한 해의 마지막 계절에 닿은 지금, 한성대학교의 2019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올 한 해 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트랙제가 시행된 지 3년 차를 맞아 학교가 드디어 안정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수강권을 두고 수강신청 기간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추운 겨울날 디자인대학 학생들이 서면신청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밤을 새우는가 하면, 경영학부에서는 학부제·트랙제 커리큘럼의 병행으로 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본교의 행정서비스가 논란이 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학생들이 공분했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희롱 쪽지 피해를 입은 학생이 속출해 학내가 들썩였다. 상상파크 공사로 회화과 전시설 폐쇄, 노후화 된 공학관 시설 등 특정 학과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한 사건도 있었다.

그 속에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매번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후에야 조치가 취해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연말에 다다랐음에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위해, 이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학교를 더욱 안정시키고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서 올 겨울은 한성대학교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많은 세대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당장 이번 달 말 총장 선출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4년 동안 본교를 새롭게 이끌어 갈 신입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5명의 후보 지원자 중 과연 어떤 이가 바톤을 건네 받아 세대교체를 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지난 달 무사히 종료된 총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대표들도 일제히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학교를 꾸려나갈 이들이 전대 대학본부 및 학생대표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무수한 전환의 한 가운데서 (한성대신문)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제45기 기자들이 대거 퇴임하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필자와 함께 이곳에 입사한 그들은 22개월간 <한성대신문>에 없어서 안 될 존재였다. '기자'와 '학생' 사이를 오가며 여러 고난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 결국 이 자리에까지 왔다. 특히 부족한 신입 편집국장들의 걸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 같은 그들이었기에 편집국장으로서나 개인적으로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지막은 곧 누군가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던가. 45기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은 후배 기자들의 새로운 막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배들, 그 위의 선배들도 그랬듯, '겹데기'는 가고 '새 알맹이'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아쉬운 마음을 접어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세대교체를 맞이하려 한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시 구절과 같이, 그들이 <한성대신문>을 떠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인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한성대신문>은 그들의 탐과 눈물방울이 섞인 200여 편의 기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장선아 편집국장

## ■ 의화정

2년 후에 40세가 되는 여자 배우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우연히 있었다. 배우가 되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두서없이 얘기하는 자리였다. 어릴 때 생긴 심장수술 자국 때문에 육사 입학시험에 실격 당한 얘기부터 이화여대 영문과를 다니며 해외 경험 없는 소수로서 절망하기도 하고, 방송 리포터가 잠깐 되기도 하다가, 청와대 최초의 여성 경호원이 되어 10년을 좌충우돌하며 버티다 30살이 훌쩍 넘어 배우가 된 얘기였다. 지금은 마흔 살 되기 전에 백덕 불릴 수 있는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 중 이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영화와 같다'며, 자신의 인생을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며 산단다.

이즈음 열독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다. 이름은 마루야마 겐지. 마루야마는 '인생은 도로(徒勞)다.' 도로 아미타불이란다.

## 인생이란 무엇인가?

마루야마는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프차를 몬다. 그저 달릴 뿐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달릴 때 정신과 몸은 오직 달리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럴 때 자신이 존재함을 온전히 느낀단다. 달리기 위해 마루야마는 소설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마루야마는 인생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다.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묻는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란 자신의 대표작에서 '인생은 소풍이다'라고 했다. 잘 즐기다 하늘로 돌아가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게임이다. 모두가 하고 있는 게임은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너무 어렵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너무 쉬워도 안 된다. 게임은 적당히 어려워야 하고

계속 레벨업이 되어 성취감으로 주야장천 게임에 매달린다. 그래야 게임회사의 매출이 높고 간혹 대박 나는 게임이 되어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게임인 인생이 너무 어려우면 젊은 나이에 자살해 버린다. 적당히 어려운 인생은 승급과 승진을 거쳐 인간의 본능인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속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난 인생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여행은 소풍이나 게임이나 영화와 같이 끝이 있다. 정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환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말이다. 환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여배우의 꿈이 블록버스터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란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때, 내 인생은 세계여행이다!  
윤재건(기계전자공학부) 교수

## ■ 기자수첩

# 소통,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때

이듬해의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한 해의 끝자락을 알렸다. 필자는 학보사 기자로서 임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 중에서도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소통'을 강조한 총학생회 후보의 공약이었다.

2년의 시간 동안 '기자'의 자리에서 학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했다. 작게는 학교 단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크게는 중앙기구 혹은 대학본부와 관련된 일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했지만, 수많은 일을 겪으며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였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생 사회 참여에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현상은 우리학교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총학생회가 선출되지 못해 그 자리를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우리학교 학생들이 유독 미온하다고 느낀 이유는 학생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반응에 있다. '수강권 침해'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학생이 대학에 다니는 목적이 '학습'인 만큼, 수강권은 학생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수강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SNS상에서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그로 인한 '학생 사회'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특히 '디자인대학 밤샘 서면신청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 총학생회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간담회를 개최한 학생회 인원을 제외하면 참여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공과목 개설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교육권리개선운동을 펼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학생 권리에 있어 이같은 학우들의 소극적인 반응은 곧 학생 대표의 '대표성'을 위태롭게 한다. 즉, 학생 대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 해를 이끌어갈 총학생회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표로서 학생 사회를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학생 대표에게는 단순 의견수렴 식의 소통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총학생회 당선자는 '소통'을 중심으로 이듬해를 꾸려나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과연 제35대 총학생회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나갈지 그 방향을 기대해 본다.

정명아 기자

## 읽으면 보이는 초성퀴즈

- \* 이번 신문의 주요 키워드를 담은 초성퀴즈입니다.
- \* 정답을 아시는 분은 12월 13일(금)까지 정답양식을 작성하여 한성대신문사 카카오톡 채널(@hansungnews)로 보내주세요.
- \* 정답자 중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 \* 추첨자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문항1. [2면] 총학생회 한결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중 소통과 관련된 공약 명칭은?  
답:

문항2. [3면]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법안은?  
답:

문항3. [6면] 전문가들은 여성할례의 원인을  질서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정답양식) 이름 / 학부·학과·제1트랙 / 학번 / 연락처 / 문항1 정답 / 문항2 정답 / 문항3 정답

지난 호 정답) ① 수강권 ② 밤토끼 ③ 청동기 시대

## ■ 낙산에 올라

지난 10월, 우리는 또 한 명의 연예인을 떠나보냈다. 그는 오랜 기간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그것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됐다.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 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쉽게 대중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SNS의 활성화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면서 그들의 일상 게시물에도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물론 악플이 꼭 연예인만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위 '악플러'들을 쉽게 마주친다. 예를 들자면

## 보이지 않는 흥기

일반 인터넷 기사, SNS 게시물 등지에서 일반인을 특정하여 비난하는 댓글을 일삼는 사람들 말이다. 심지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악플러는 존재했다.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악플은 하루의 기본을 온통 망치게 하기 마련인데, 거의 매일 악플과 마주치는 연예인들은 오죽할까 싶다.

한국은 온라인 댓글 익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악플은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의 이름 혹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당당하게 악플을 남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난 10월 22-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가 성인 3,162명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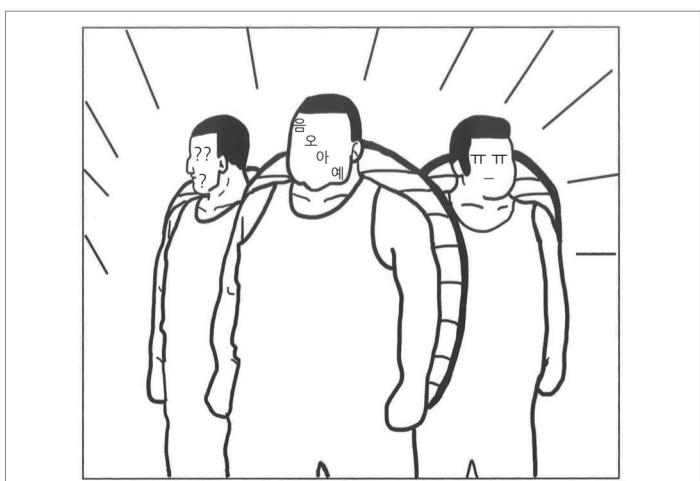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71%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악플로 인한 피해를 더 마주해야 할까. 악플은 이해 받아서도,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익명의 가면을 쓰고 악플을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흥기'다. 지금이야말로, 또다시 이런 참극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최보윤(사회과학 2)

## #낙산세컷\_조별과제\_단독방\_NO답\_삼형제

이가연 기자



# 재개발로 집 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편집자주〉

삼선제5구역 재개발이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우리학교 중문 인근의 거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이주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곳을 오랜 시간 지켜온 상점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으면서 삼선제5구역은 점점 '폐허'로 변하고 있다. 모두가 이주 준비로 한창이지만,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동물이 있으니, 바로 '길고양이'다.

재개발이 진행될 삼선제5구역 인근은 많은 길고양이의 터전이다. 우촌관 중문 앞의 '까까', '큰똥분식'과 주차장 입구 부근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지에도 많은 길고양이들이 서식 중이다. 재개발이 시작돼 인근이 공사장으로 변하면 이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번 지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우리에게 재개발은 악몽이에요



길고양이는 말그대로 도심이나 주택가에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시 내 도심지나 주택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는 약 139,000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면적 1㎢ 당 대략 230마리의 길고양이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길고양이는 인간들과 아주 밀접한 존재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되면 길고양이는 수많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은 곧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파괴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길고양이에게 재개발이란 '악몽' 같은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는 전장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라 해도 무방하다. 먹이를 구하기 어렵고, 익숙했던 공간이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이슬(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선임활동가는 "길고양이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포크레인을 피해 지하로 숨곤 한다. 그곳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사료를 주던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것도 길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다. 먹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임영기(동물구조119)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건물이 다 부서진 뒤 펜스로 봉쇄된다. 먹이활동을 돕는 봉사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아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고양이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역축소로 인한 개체 밀도 증가 때문에

발정이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체수 증가로 이어져 치열한 영역 및 먹이 경쟁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고양이에게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환경 변화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지어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고양이의 특성상 질병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이같은 이유에도 길고양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 바로 그들이 '영역동물'이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자신의 영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동하는 고양이도 있다. 하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 자발적 이동이 쉽지 않다"며 "이동을 했다가도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고양이도 많다"고 말했다.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길고양이가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방법인 "TNR(Trap-Neuter-Return)"을 꼽았다. TNR은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에는 무조건 개체수를 파악하고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한다. 고양이는 낮 시간이 제일 긴 '하지' 이후 번식을 시작하는데, 이때 재개발 지역 내 개체수를 TNR 방식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만약 봄에 발견되는 새끼 고양이가 있다면 빠르게 입양을 보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길고양이 서식지 이주'도 좋은 방법이다. 길고양이의 서식지 이주는 크게 '강제 이주'와 '점진적 이주'로 나뉜다. '강제 이주'는 고양이를 포획한 후 이주 공간에 방사하는 관리 모델로, 공사 시작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시에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점진적 이주'는 배식자리를 조금씩 이동시켜 길고양이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하는 이주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의 개체수 확인, TNR, 이주를 위한 구조까지 길고양이

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동물보호단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손 활동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특히 시공사 및 해당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길고양이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대표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 시공사에 (구조 협력을) 요청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갈 곳 없는 길고양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작 전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현지(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팀) 주무관은 "지금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범사업만 계획된 상태"라며 "시범사업도 전역에 시행할 수 없어 몇몇 지역에서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삼선제5구역처럼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되는 지역에는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방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간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고양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길고양이의 복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우리들의 추억, 이번 사진속으로

김주원 기자 sea2019@hansung.ac.kr  
 안현경 기자 dksusrud24@naver.com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탐구관 옥상에서 촬영한 삼선제5구역의 전경이다.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주택들은 높게 뻗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카페 마켓'의 김효신 사장은 "재개발이 다가오자 건물주들이 월세를 높였다. 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월세가 올라가면 전체적인 음료의 가격대가 올라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그니처 메뉴 '폭팔메산'을 먹기 위해 학생들이 자주 찾았던 식당, '한아름'이다. 약 30년간 자리를 지켜왔던 이곳도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우촌관 중문 뒷길에 '이주개시공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4개월 안에 이주해야 한다'는 공고사항이 적혀있다.



▲삼선제5구역 재개발로 인해 우촌관 중문 부근의 식당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식당 가운데 '윤가네'를 가장 많이 찾았던 김민주(사회과학 2) 학생은 "윤가네의 메뉴 중 알밥을 좋아해 즐겨 먹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갈 수 있는 곳이 학식당으로 좁혀져 어렵다"고 전했다.



▲이미 폐업한 '한성마트'와 오는 12월 중으로 폐업 예정인 '라면 일번지'의 모습이다. 라면 일번지의 이우조 사장은 "3월까지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아파트의 입주신청을 하지 않아 12월까지만 장사하려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삼선제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문을 닫은 음식점의 모습. 음식점 안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남아있다.



▲이미 비어진 가게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통제구역 표식이 붙어있다.



▲지역 주민의 옷수선을 책임졌던 '한성대 옷수선'이 삼선제5구역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이전했다. 김정현 사장은 "가게 이전으로 인해 가정과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개발로 인해 손님이 줄어 힘들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